

8월 광주, 싸이·세븐틴 무대에 뜨겁게 물들다

‘싸이햅쇼’ 2년 연속 광주 상륙
게스트 관심...연속 매진 이어갈까
데뷔 13년 차 세븐틴 광주 첫 공연
유닛 호시X우지, 8월 말 팬 콘서트

무더위가 절정에 이를 8월, 광주가 싸이와 세븐틴의 무대에 열광하며 한여름 밤의 축제 도시로 변신한다. 싸이는 지난해 광주 공연에서 5년 만의 매진 열풍을 이어 2년 연속 광주를 몰바다로 만들 준비를 마쳤고, 세븐틴은 데뷔 13년 만에 처음 광주를 찾아 팬심을 달군다. 지역 공연계는 “대형 콘서트를 향한 티켓 열기와 공연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며 들뜬 분위기다.

●싸이, 2년 연속 광주 여름 적신다

싸이는 오는 8월 23~24일 이틀간 조선대 종합 운동장에서 ‘싸이 햅쇼 SUMMERSWAG 2025 -광주’를 연다. 이번 공연은 이달 28일

천을 시작으로 전국 9개 도시, 16회에 걸친 투어 일정의 하나로, 지난해 5년 만에 광주를 찾았던 싸이가 매진 신화를 이어갈지 관심이 쏠린다. 광주는 지난해 햅쇼에서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으며 전국 투어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무대 중 하나로 평가받았다. 싸이는 “광주에서의 열기는 늘 특별하다”며 광주 공연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햅쇼는 싸이 특유의 폭발적 무대 장악력과 초대형 워터 캐논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폭탄 퍼포먼스, 화려한 무대 연출이 결합된 국내 대표 여름 콘서트다. 싸이의 대표곡 퍼레이스와 관객 전원이 함께 뛰고 부르며 즐기는 떼창, 춤, 그리고 폭죽과 특수효과가 더해져 무더위를 단숨에 날려버리는 짜릿한 축제로 자리 잡았다. 남녀노소 관객층을 아우르며 매년 치열한 예매 전쟁을 치르게 하는 이유다.

특히 햅쇼의 묘미는 언제 등장할지 모르는 초특급 게스트들의 깜짝 무대다. 지난해 광주 공연에서는 제시, 화사, 다이남미두가 출연해 공연장을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었다.

공연 업계 관계자는 “햅쇼는 단순한 콘서트라 아니라 광주 여름을 대표하는 하나의 축제가 됐다”며 “올해도 예매 시작과 동시에 매

진이 예상될 정도로 티켓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븐틴 호시X우지 광주팬 첫 대면

세븐틴의 스페셜 유닛 ‘호시X우지’는 같은 날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체육관에서 팬 콘서트 ‘WARNING’을 연다. 서울과 부산을 포함해 대만, 일본을 거친 투어의 마지막 무대로 광주가 선정되며 팬들의 기대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이번 공연은 단순한 투어의 한 회차를 넘어, 세븐틴이 데뷔 13년 만에 처음으로 광주에서 팬들을 직접 만나는 역사적 순간이 될 전망이다.

세븐틴의 완전체는 아니지만, 호시X우지 유닛 공연만으로도 지역 팬심은 이미 들끓고 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 대형 아이돌 공연을 보기 쉽지 않은 현실에서 광주 공연은 10~20대 팬층을 중심으로 ‘티켓 전쟁’을 예고하며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티켓팅 성공을 다짐하는 글, 응원 메시지, 숙박 예약과 교통 정보까지 공유하며 팬들의 열기는 이미 공연장을 넘어섰다.

광주에 거주하는 김민경

(21)씨는 “세븐틴을 8년 넘게 좋아했지만 광주에서는 한 번도 볼 기회가 없었다”며 “서울 공연

때마다 교통비, 숙박비 부담이 컸는데 이번에는 마음껏 즐길 수 있어 정말 기대된다”고 말했다. 일부 팬들은 “광주 공연을 계기로 앞으로 더 많은 대형 아이돌 공연이 지역에 자리잡길 바란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호시X우지는 이번 공연에서 유닛곡 ‘날 쏘고 가라’, 첫 싱글 ‘BEAM’은 물론, 광주 팬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무대와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앞서 서울 공연이 멤버십 선예매 오픈 당일 매진되며 강력한 티켓 파워를 입증한 만큼, 광주 공연 또한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연 업계 관계자는 “세븐틴의 광주 공연은 지역 공연 시장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성공이 광주를 대형 콘서트 주요 무대로 도약시키는 발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광주는 이번 싸이와 세븐틴 공연을 계기로 ‘문화변방’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대형 공연지로 자리매김할지 주목된다.

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



28일 광산구 하남동 광산농악전수교육관에서 ‘사시사철 굿이여’ 프로그램 ‘도깨비굿’이 개최된다. (사)광산농악보존회 제공

(사)광산농악보존회 ‘도깨비굿’ 프로그램 운영

28일 광산농악전수교육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농악을 공연·체험·교육을 통해 다방면으로 알아보는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22일 광주광역시 무형유산인 (사)광산농악보존회는 오는 28일 오후 2시 광산구 하남동 광산농악전수교육관에서 사시사철 굿이여 프로그램 ‘도깨비굿’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시사철 굿이여’는 국가유산청과 광주 광산구가 주관하는 2025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4월 시작해 오는 10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열린다.

이번 ‘도깨비굿’ 공연은 마을 사람들의

소원을 비는 곳으로, 장난스럽고 친근한 존재인 도깨비를 주제로 구성된다. 사진 공연은 ‘양과리 어쩌다 풍물패’의 사물놀이 공연이 예정돼 있다.

또한 부대 프로그램으로는 광산농악의 유래와 특징을 배우는 ‘광산농악 데다보기’, 비나·죽방울·죽마 등의 전통놀이 체험도 마련된다.

이번 ‘광산농악 데다보기’의 주제는 광산농악 설장구이며, 김용석 전수교육사가 진행을 맡는다. 설장구는 농악의 치배에서 장구잡이의 우두머리를 뜻하는 것으로, 판굿에서는 우두머리인 설장구가 나와 숨씨를 보이는 놀이를 일컫는 말이다. 아랫놀음이 풍부하며 잔발치기와 너름새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박찬 기자

사진+디지털 기술의 만남... ‘테크니컬리 스피킹’ 전시

내달 6일까지... 작가 5명 참여

이미지 기술이 빠른 속도로 진화하는 오늘날, 사진과 디지털 기술이 융합된 실험적인 예술세계를 펼쳐낸 공간이 눈길을 끈다.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공간 집·DDF SPACE에서 다음달 6일까지 전시 ‘테크니컬리 스피킹’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를 통해 사진과 디지털 이미지 처리 기술을 실험적으로 탐구하는 작가 다섯 명의 작품을 소개한다. 두 공간에는 사진, 회화, 영상 등 각기 다른 매체와 기술을 활용한 이미지 실천을 구현한 작품 38점이 자리한다.

노유승 작가는 컴퓨터 그래픽과 드로잉, 영상 등을 넘나들며 정체성과 자아 탐색의 여정을 시각화한다.

윤태준 작가는 선명하고 반복적인 사진 및 디지털 그래픽을 통해 이미지와 신체 감각의 연결 방식을 탐구했다. 이현우 작가는 생성형 AI 이미지와 인공지능을 활용해, 사진 미술의 근본 개념을 실험적으로 해석했다.

정환결 작가는 사회 주변부에 놓인 존재들의 언어와 이미지를 수집·콜라주하거나, 그 공간을 직접 오르내리는 행위로 자신의 기록 방식을 시각화했으며 정영돈 작가는 일상을 담은 부친의 필름에 태양의 일출과 일몰 궤적을 담아내 일상의 날

들을 은유한다.

전시는 이처럼 사진의 본질, 디지털 그래픽 이미지의 물성, 이미지와 신체적 감각의 관계를 탐색하며, 나아가 사회·개인적 서사를 시각화하는 다양한 방식을 탐구한다.

다양한 형식을 넘나드는 이들의 작업은 기술 매체에 대한 실험인 동시에 인간과 삶을 성찰한 결과로 다가온다.

예술공간 집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기술이라는 수단을 통해 인간의 감각과 존재의 본질을 탐색하는 예술가들의 태도를 조명하는 자리”라며 “관객들이 이미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찬 기자

광주여성가족재단, ‘젠더 브런치 영화제’ 연다

내달 3·17일 재단 북카페 은새암서

바쁜 일상 속 점심시간에 영화와 브런치로 문화적 여유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찾아온다.

광주여성가족재단과 광주여성영화제가 주관·주최하는 ‘젠더 브런치 영화제’가 다음달 3일과 17일 2회에 걸쳐 북카페 은새암에서 열린다.

이번 프로그램은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

고 일상에서 문화예술 향유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공동 협력사업으로, 한국여성평등교육진흥원이 후원한다. 특히 독립영화라는 장르를 통해 성평등과 일·생활 균형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를 끌어내고자 기획했다.

‘젠더 브런치 영화제’는 평일에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점심시간에 운영되며, 광주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영화 상영 후에는 짧은 소감 공유를 할

수 있는 브런치 무비토크도 마련돼 관객 간의 소통도 활발히 이뤄질 전망이다.

1회차(7월3일)에는 수영장 청소년 ‘세은’의 이야기로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과정을 담은 영화 ‘침방’이 상영되며, 2회차(7월17일)에는 한옥 찻집에서 나누는 대화를 통해 일상 속 치유를 다룬 ‘백차와 우룻차’를 선보인다.

프로그램 참여는 온라인 신청 또는 전화 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광주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www.gjwf.or.kr) 또는 인스타그램(@gjwomenfamily)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찬 기자